

#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너를 미워했던 여름**

이로아 장편소설

주제어: 죽음과 상실, 운명, 성장, 관계

## ※ 책 소개

무당 행세를 하던 엄마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열아홉 연제는 여름 방학 동안 엄마의 신기를 빌려가짜 무당 활동을 시작한다. 친구들의 손금을 봐 주며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던 어느 날, 연제는 친구 한겸에게 닥쳐올 생생한 죽음의 환영을 보게 된다.

하지만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운명 앞에서 한겸은 정작 담담하기만 하다. 매 순간 위태롭게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한겸은 끊임없이 연제를 찾아와 함께 운동을 하고, 바다에 가고, 맛있는 것을 챙기며 오히려 연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한겸 덕분에 멈춰 있던 연제의 세상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연제는 한겸의 잔인한 운명에 자신과 엄마가 깊숙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한겸을 살리고 싶은 마음과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워하는 게 더 쉬웠던 열아홉의 여름, 과연 연제와 한겸은 무사히 스무 살이 될 수 있을까?

## ※ 학습 목표

- ① 작품 속 주요 장치를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를 추론할 수 있다.
- ②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을 성찰하며 자아를 탐색할 수 있다.
- ③ 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작품 미리보기
2	독서 중 활동	<b>1 ~ 2</b>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정리하기 2.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내용 추론하기 3.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 능력 파악하기 + 내용 추론하기
3		<b>3</b> 1. (창의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미술작품 감상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 행위의 인과관계 추론하기 3. (사실적 읽기 + 감상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인물과 대화하기
4		<b>4</b>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내용 추론하기 3. (감상적 읽기)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5		<b>5 ~ 6</b>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인물 특성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 간 관계 추론하기
6		<b>7</b> 1. (추론적 읽기) 인물 행위의 인과관계 추론하기 2. (사실적 읽기) 비유적 표현 이해하기 3. (사실적 읽기 + 감상적 읽기)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하기 +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7		<b>8 ~ 10</b> 1. (감상적 읽기) 매체를 활용하여 깊이 있게 읽기 + 인물과 대화하기 2. (추론적 읽기) 내용 추론하기 3. (감상적 읽기) 내용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8		독서 후 활동

[지도 tip] 본격적인 독서에 앞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가벼운 질문을 통해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활동입니다. 프롤로그까지 함께 읽은 후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 자유로운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 주세요.

### 1.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 누구였나요?
- 그 사람이 왜 미웠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 지금은 그 사람(혹은 그 사건)에게 어떤 감정인가요?

### 2. 이 작품의 제목 《너를 미워했던 여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2-1.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① 미워했'던'이라는 과거형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② '너'는 누구일까요? 또, 주인공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

---

---

③ 왜 미워했을까요?

---

---

---

2-2.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질문 한 가지를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제목에 보고 떠오른 질문

질문에 대한 나의 답

질문에 대한 친구의 답

2-3. 프롤로그를 읽고 주인공 '연제'의 특징을 추측해 봅시다.

특징:



그렇게 생각한 이유나 근거:

1. (사실적 읽기)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인물	특징
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 19세(고등학교 3학년)</li> <li>•</li> <li>•</li> </ul>
승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li> <li>•</li> <li>•</li> </ul>
한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례명:</li> <li>•</li> <li>•</li> </ul>

2.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2-1. (사실적 읽기) 20 ~ 21쪽에 나온 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2-2. (추론적 읽기) 다음 밑줄 친 '주제를 모르고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 추측해 봅시다.

천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엄마는 신의 심부름꾼이었는데, 주제를 모르고 저지른 실수가 하나 있다. 그것을 찾아 바로잡으면 깨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너에게 네 엄마의 알량한 재주를 빌려주마.”

3.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그러나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어떤 장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귀를 찢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익숙한 동네. 덕성동사거리. 횡단보도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어린 한걸. 남색 책가방과 흩어진 운동화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 장면 전환. 어린 한걸이 누워 있는 병실. 아이의 얼굴을 뒤덮은 산소마스크. 한걸의 어머니가 엄마를 맞이한다. 과거의 엄마는 놀라울 만큼 아름답다. 엄마는 한걸의 어머니에게 노란 종이를 건넨다.

“지난번에 썼던 부적, 이걸로 바꿔. 그러면 일어날 거야.”

또다시 장면의 전환. 이번 장면의 배경은 아파트 복도. 훌쩍 큰 한걸, 그러니까 지금의 한걸의 모습이 보인다. 도어 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한걸의 어깨에는 반찬 통 없이 텅 빈 보냉 가방이 걸려 있다. 거실에서 한걸의 어머니가 아들을 맞이한다.

“언제는 좀 어때?”

“다 죽어 가던데요.”

“그건 어떻게 됐어? 얘기는 해 봤어? 어떻게, 방법이 있대?”

“얘기 못 했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다 죽어 가더라니까요.”

한걸의 어머니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찰나, 장면이 흩어지고 눈앞이 환해진다.

3-1. (사실적 읽기)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연제의 능력을 정리해 봅시다.

3-2. (추론적 읽기) 밑줄 친 ‘그건’이 무엇일지 추측해 봅시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창의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다음 영상과 그림을 참고하여 후세페 데 리베라의 <라자로의 부활>을 감상한 느낌을 간략하게 써  
봅시다.

▶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HH2m5t-upg>

▶ 참고 그림: 후세페 데 리베라 <라자로의 부활>

<https://photo.catholic.or.kr/album/view.asp?id=112879>



---

---

---

1-2.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렘브란트의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간략한 감상문을 작성해 봅시다.

<보기>

라자로를 주제로 한 그림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된 후세페 데 리베라의 <라자로의 부활>이다. 라자로를 일으켜 세우는 예수의 얼굴은 매혹적이라 부를 만하다. 예수의 눈빛은 죽은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답지 않게 무심하다. 반면 막 일어난 라자로의 눈빛은 인간적인 번뇌로 가득 찬 듯하다. 그 대비는 내 안의 감정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 참고 그림: 렘브란트 <라자로의 부활>

<https://photo.catholic.or.kr/album/view.asp?id=96132>

---

---

---

---

---

---

---

---

---

---



1-3. '예수와 라자로의 관계'와 '연제와 한겸의 관계'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두 관계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2.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2-1. 이사를 온 후 엄마가 달라진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이사를 오기 전에는 주기적으로 모이는 가족 무리가 있었다. 번갈아 가며 각자의 집에서 만나거나 펜션을 빌려서 교외로 놀러 다녔다. 모임이 있을 때면 엄마는 열심히 정보를 수집했다.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무리에 관한 정보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같은 학교 학부모들과 교류하기도 했고 이웃들과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이사를 온 뒤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엄마는 건물 지하에 신당을 차리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열심이었다. 나는 엄마가 이사를 기점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사를 온 뒤에 삶이 달라진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달라진 나의 일상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다.

### 2-2. 연제가 고기를 안 먹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나는 고기 안 먹어.”

내가 말했다.

한걸이 그럼 생선은 먹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애매하게 끄덕였다.

**[지도 tip]**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는 부분을 미리 눈여겨보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답을 작성하게 한 뒤, 이어지는 내용을 읽으며 자신의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사실적 읽기 + 감상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엄마가 했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한결의 반응이었다.

“너,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물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이 그거라면, 너는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인 거야”

라고 돌아온 대답이.

내가 했던 질문이 그렇게 잘못됐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 한결의 반응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결의 인생이 어땠는지 같은 건 궁금하지 않았다. 내가 꽃혔던 지점은 오직 한결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였다. 어머니의 집착과 통제 아래에서 사춘기를 지냈을 너의 마음보다, 네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보이게 했는지가 더 중요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네 눈에는 내가 어떤 인간처럼 보인다는 거야? 너는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야?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것뿐이었다. 생각해 본 적 없어,라는 선택지는 인정하기 힘들었다. 너는 여기서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라는 선택지도 마찬가지로였다.

〈중략〉

눈을 감았다가 뜨면 나의 존재가 지구에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 이 모든 것이 한낱 누군가의 꿈일 것만 같다. 언제부터지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3-1. (사실적 읽기) 한결이 연제에게 ‘너는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3-2. (감상적 읽기) 밑줄 친 구절과 같이 생각하는 연제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연제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을 작성해 봅시다.

연제야,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천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엄마는 신의 심부름꾼이었는데, 주제를 모르고 저지른 실수가 하나 있다. 그것을 찾아 바로잡으면 깨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너에게 네 엄마의 알량한 재주를 빌려주마.”

1-1. 연제가 생각한 엄마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



---



---

1-2. 연제가 생각한 엄마의 ‘부적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



---



---

1-3. 연제가 생각한 엄마가 ‘깨어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



---



---

## 2. (추론적 읽기)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2-1. 우산을 들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지 추측해 봅시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대문 너머에 누군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회색빛 도로 위에 남색 우산이 활짝 펼쳐져 있었다. 창문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댔다. 열심히 기웃거리려 보았지만 우산 아래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밖에 누가 있어.”

내가 말했다.

“누구?”

“여기서는 얼굴이 안 보여. 너무 멀어.”

“승주 이모 손님인가? 왜 초인종을 안 누르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지도.”

“밥 먹고 나가 보자.”

### 2-2. 다음에서 언급된 ‘개’와 관련된 사건을 추측해 봅시다.

축 늘어진 데다가 물까지 먹어 무거워진 몸을 끄집어 올리는 데는 세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산책로에 놓인 한점의 얼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을 감은 한점은 편안해 보였다.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귀에 대고 이름을 불러 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나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았다.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다. 실제로도 해 본 적이 있기는 했다. 딱 한 번. 비록 사람은 아니고 개한테였지만. 그리고 그 개는 끝내 죽었지만.

**[지도 tip]**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는 부분을 미리 눈여겨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감상적 읽기) 이 작품에서 괄호를 활용하는 서술 방식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감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보기〉

한걸은 달라붙은 천 조각을 손톱으로 긁으려 했다. 나는 한걸을 제지하고 가까운 병원을 검색했다. 처치 없이 보냈다가 다음 달쯤 부고를 전해 듣고 싶지는 않았다(사인: 과상풍으로 인한 합병증). 그랬다가는 한걸이 개의 등에 업혀서 꿈에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지도 tip]** 소설의 독특한 서술 방식과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위의 〈보기〉 이외에 괄호가 쓰인 부분을 추가로 찾아 괄호 속 내용의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게 해 주세요. 더 나아가 이러한 문학적 장치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나 인물의 성격, 내면 심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1. (사실적 읽기) 괄호를 채워 연제가 환영으로 본 장면들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	초등학생 한겸이 ( )을/를 타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
둘	중학생 한겸이 ( )에 쓰여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
셋	고등학생 한겸이 ( )에 부딪혀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
넷	고등학생 한겸이 추락하는 ( )에 부딪혀 발등을 다쳤다.
다섯	한겸이 ( )을/를 당한다.

## 2. (사실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한겸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 연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연제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3. (추론적 읽기) ‘김원정’과 ‘민경 이모’, ‘개’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 추측해 봅시다.

“최근에 원정이 소식을 들었니?”

이모는 대답 대신에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학교가 달라서요.”

“그렇구나.”

이모는 또 생각하는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말했다.

“원정이는 잘 지내지.”

나는 김원정의 소문을 비교적 최근에 들은 적이 있다. 올해 초의 일이다.

“원정이가, 연제 너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해. 둘이 한번 만나면 좋겠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이모에게 퍼부었던 말이 떠올랐다. 김원정에게 퍼부었던 말도 떠올랐다.

“다행이에요.”

나는 오래전의 일을 곱씹으며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중략〉

이모가 돌아간 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 개가 나왔다. 개는 나를 먹었다. 잘근잘근 씹어 먹고는 무언가를 뱉었다. 그것은 잇몸과 치아만 남은 나의 조각이었다. 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는 김원정의 살점이 끼어 있었다.

〈중략〉

등 등 등 등등 등 등등.

옷에 스며든 죽음의 비린내.

개는 위아래로 많은 것을 쏟아 내며 죽었다.

고개를 들었고 김원정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품 속의 개를 내려 두고 일어났다. 김원정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김원정은 뒷걸음질조차 치지 못했다. 손바닥에 묻은 개의 피는 이상하게 뜨거웠다.

“너는 죽어야 해.”

내가 말했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추론적 읽기) <보기 1>을 보면 ‘원정’이가 ‘연제’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의 엄마 ‘민경’은 연제 엄마인 ‘승주’에게 왜 친한 척을 했는지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그 숨겨진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1>

이튿날 귀가한 나는 엄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중이었다.  
“언니 아들이 연제한테 한 짓을 알고 있어? 알면서도 뻔뻔하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친한 척했던 거야? 언니도 언니 아들도 그렇게 살다간 천벌받아. 정말로 천벌받을 거야.”

<보기 2>

한참 뒤에 민경 이모가 입을 열었다.  
“원정이가 불행해진 것이, 그때 내가 네 뺨을 때렸기 때문이니?  
그래서 원정이가 벌을 받는 거니? 내가, 원정이가 용서받을 기회를 내가 없애 버린 거니? 나 때문에?”  
이모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그때 너한테 용서를 빌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내가 감히 너를…….”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모가 손바닥을 내렸다. 진실을 구하고자 하는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

---

---

---

---

2. (사실적 읽기) 밑줄 친 부분이 내포하는 의미를 떠올리며, 이를 통해 연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내가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영웅이 되어 표창장을 하사받았기 때문은 아니었고(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는 일은 당시 교내 분위기상 계급 상승보다는 하락의 전조에 가까웠다), 그보다는 내가 미친개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죽은 개의 사체가 다름 아닌 김원정의 오줌 웅덩이 위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썩으로 퍼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애들은 오줌싸개를 배척하느라 바빠진 나머지 단물 빠진 무당 아들에게는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다. 애들이 목격했다는 것이 개의 오줌이었는지, 김원정의 오줌이었는지, 내 오줌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오줌이 맞기는 했는지, 아니 정말 그곳에 웅덩이라는 게 있기는 했는지, 그런 건 누구도 모를 일이었다.

세상의 많은 일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내 삶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일마저도 실은 나와 아무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를 죽을 듯 괴롭게 만들었던 일의 시작과 끝은 사실 내 손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는 ( )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사실적 읽기) 괄호를 채운 뒤 연제와 승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연제	개에게 물려 죽을 뻔한 ( )을/를 살린다.
승주	스무 살 전에 죽을 운명인 ( )을/를 살린다.



- 연제와 승주의 공통점:
- 연제와 승주의 차이점:

3-2. (감상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내가 개를 골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이후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겠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경우의 수. 운명대로 돌아갔을 세상. 일찍이 정해진 대로 펼쳐졌을 미래. 가만히 있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움직여서 모든 흐름이 어그러진 것일지도 모른다. 김원정은 지금 나에게 고마워할까. 나를 자신의 은인이라고 생각할까. 솔직히 모르겠다.

- 연제가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봅시다.
- 여러분이 연제였다면 개와 김원정 중 무엇을 골랐을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small>(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small>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small>(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small>

1. (감상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섬세함과 예민함의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 참고 영상: 예민함 VS 섬세함, 뭐가 다를까?  
[https://www.youtube.com/watch?v=\\_Qf-e98fbwo](https://www.youtube.com/watch?v=_Qf-e98fbwo)

예민함	섬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1-2. 1-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연제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을 써 봅시다.

“예민해서, 남들은 금방 잊어버릴 사소한 것들에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쳐 버리는 기분이 들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고. 정신을 차려 보면 나한테 남아 있는 건 엉뚱한 것뿐이야. 돌아보면 왜 이런 거에 집착했나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쓸모없는 것들. 벌써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린 것만 같아. 아직 스무 살도 안 됐는데 말이야.”

연제야,

---



---



---



---



---

## 2.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2-1. 이 장면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시체 썩는 냄새가 물 건너까지 온다.”

스님이 대뜸 말했다.

“네?”

내가 되물었다.

“냄새가 지독해서 나왔더니 웬 시체가 걸어 다니네.”

한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걸이 사라진 쪽을 돌아보았다.

“얘!”

스님이 나를 불렀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중략〉

“팔자라는 건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 뿐, 있는 것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걸 알아야지.”

### 2-2. 2-1에서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연제)는 모르고 엄마(승주)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울고 있다. 나는 그 뒤를 뛰어다닌다. 나는 울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알게 되었으므로 운다.

## 3. (감상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3-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거나 아쉬움이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나는 그날 민경 이모에게, 그것이 민경 이모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민경 이모가 내 뺨을 때리든 때리지 않았든 김원정의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었을 거라고 말해 줘야 했다고 후회한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민경 이모에게는 더 잔인한 일이었을 테니 대답을 아낀 것이 잘한 일 같다고 생각을 고쳐먹는다.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민경 이모에게 어떤 답도 내놓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내 안에서 되풀이되는 후회와 안도의 주도권 싸움.

3-2. <보기>를 바탕으로 후회와 아쉬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작성해 봅시다.

<보기>

다음으로는 민경 이모가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다. 내 뺨을 때리던 순간에 간혀 살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달리했다면 현재가 지금과는 달랐으리라는 가정에 사로잡혀 사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나는 그 착각이 어떤 기분인지 안다. 민경 이모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략>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를. 누구도 자책하지 않기를.

---



---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2-2. 체크 한 상황 중 하나를 골라 그 상황에서 쓰는 가면의 이름을 지어 봅시다.

(예: 손금 잘 봐 주는 성격 좋은 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는 분위기 메이커, 철저히 감정을 숨기는 포커페이스 등)

---

---

2-3. 그 가면을 쓸 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나 신경 쓰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

---

---

2-4. 가면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써 봅시다.

(예: 분위기 망칠까 봐,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등)

---

---

■ 진짜 '나' 발견하기

3. 아래 <보기>는 연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려움을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타인의 시선 뒤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 적어 봅시다.

<보기>

판단당하는 것은 곧 존재의 증거이었다. 내 급을 매겨 줘. 나를 생각해 줘. 선망하거나 경멸해 줘.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지 않으면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다. 가식적이라고 조롱해도 좋으니, 나에게 대해 생각하고 나에게 대해 떠들어 줘.

나를 소외시키지만 말아 줘. 주위를 날아다니는 수식어에 기반해서만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가 누군지 도통 알 수 없으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어서만,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면서만…….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도저히 혼자서는 존재하는 법을 모르겠어. 눈을 감았다가 뜨면 나의 존재가 지구에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 이 모든 것이 한낱 누군가의 꿈일 것만 같다. 언제부턴지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 3-1. 남에게 들리고 싶지 않은 약점이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예: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

---

---

### 3-2. 내가 가면을 벗고 그저 나로서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

---

---

### 3-3. 아래 빈칸에 여러분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채워 넣어 봅시다.

(예: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눈물이 많은, 너무너무 외로운, 약속을 잘 지키는 등)

---

---

---

## ■ 나에게 보내는 편지

### 4. 다음 물음에 답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4-1. 연제는 자신의 약점인 예민함을 담담하게 수용함으로써 한층 더 성장합니다. 아래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약점을 괄호 안에 적어 봅시다.

<보기>

나의 예민함 이, 나의 안일함 이 나를 어디론가 인도할 것이다.

한걸음의 제멋대로인 면 이 그렇듯이.



나의 ( )이/가, 나의 ( )이/가 나를 어디론가 인도할 것이다.

4-2.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가면을 쓰며 살아온 나에게

20    년    월    일  
가면을 벗어던진 내가